

남강유역 초기~전기의 편년

김 병 섭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남강유역 초기~전기의 편년 |
| II. 남강유역 기존의 편년안 | V. 맺음말 |
| III. 초기~전기 주거지 출토 유물 공반양상 | |

I. 머리말

남강유역의 청동기문화는 1990년대 후반 이루어진 남강댐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국내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송국리문화 단계의 환호취락과 대규모의 경작지뿐만 아니라 당시 국내에 확인된 사례가 적었던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청동기시대의 시작과 시기구분, 전기 무문토기의 다양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남강유역에서는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구체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고, 이를 통해 이후 새로운 유적들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초기~전기에 해당되는 자료는 중부지역이나 대구지역에서 조사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남강유역 초기~전기에 대한 편년을 시도하여 왔다.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비교·검토한 다음 발표자의 견해를 일부 첨가하여 종합적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II. 남강유역 기존의 편년안 검토

남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편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시도해 왔는데, 대표적으로는 고민정(2003·2010), 천선행(2005·2007), 쇼다신야(2007), 송영진(2012), 정지선(201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편년안을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고민정(2003)	
1기 전기전반	각목돌대문, 즐문토기공반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단사선문, 돌류문
2기 전기후반	혼암리식토기(구순+돌류+단사선+유사이중, 단사선+이중, 구순+돌류, 돌류, 구순각목문), 이단경식축·유혈구석검·이단병식석검·반월형석도·합인석부 등 다양한 석기
	역삼동식토기(돌류, 구순+돌류, 구순각목문), 대평리식이중구연, 부리형석기, 삼각만입축·반월형석도 미완성품 소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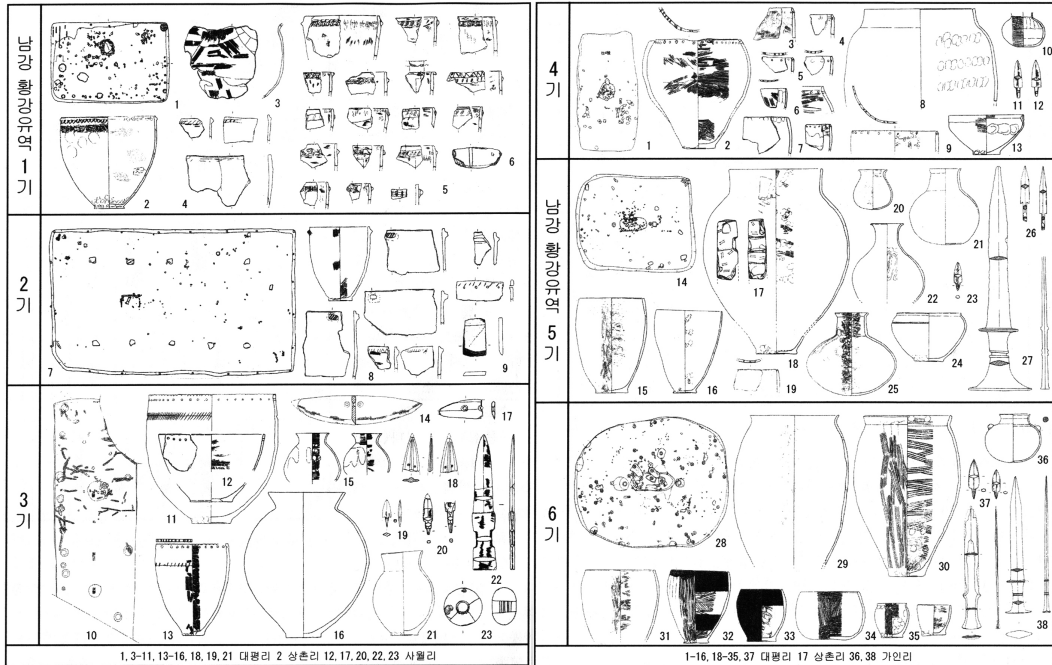
고민정(2010)			
전 기 전 반 (1기)	조기	1단계	돌대문 1형, 신석기말기와 공존 가능성. 소형 방형·장방형주거지, 석상위석식노지
		2단계	돌대문 2형, 구연단 연결 돌대문, 공열문계 중형 장방형주거지, 석상위석식·위석식노지, 초석, 주혈, 단시설, 저장혈 등
	전기 전반	3단계	돌대문 3형,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거치문, 공열문계 중형 장방형주거지, 석상위석식→위석식노지, 단시설, 주혈, 저장공
		4단계	돌대문 4형,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거치문, 공열문계 중형 장방형주거지, 위석식·수혈식노지, 초석, 주혈, 단시설
돌대문 1형: 구연단에서 0.5~1.0cm 이격, 단면 제형, 각목의 폭이 넓음. 돌대문 2형: 구연단에 연결, 단면 제형, 각목의 폭이 넓음. 돌대문 3형: 구연단에 연결, 단면 장방형, 각목의 폭이 좁음. → 이중구연. 돌대문 4형: 구순외단각목			

고민정은 2003년 논문에서는 전기를 2단계로 구분하였고, 돌대문토기(일주 돌대문토기→절상돌대문)→혼암리식토기→역삼동식토기로의 변화를 상정하였다. 이후 2010년도의 논문에서는 기존 전기전반을 돌대문토기를 통해 4단계로 구분하여 초기(1~2단계), 전기 전반(3~4)으로 세분화하였다. 돌대문토기의 형식 차이를 시기변화로 상정하였으며, 구순각목의 출현을 돌대문토기의 퇴화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時期	划目突帯文	節狀突帯文	他文様	時期	他文様	浅鉢	壺	赤色磨研土器
早期		()	상촌리D지구2호:1 상촌리D지구10호:2 소남리142호:4 옥방5지구C-3호:10~12 옥방5지구C-4호:15 옥방5지구D-1호:8-9 옥방5지구D-9호:3 어운1지구5호:5 어운2지구2호:20 삼내T:13 삼내2호:6 사월리3호:14 사월리11호:7 본촌리나지구3호:16~19	早期				()
前期 I 期				前期 I 期			옥방5지구C-3호:28-29 옥방5지구D-2호:23 어운1지구116호:21-22 어운2지구2호:33 상촌리D지구10호:24-26 소남리142호:27 본촌리나지구3호:34-35	
前期 II 期				前期 II 期		()		()
前期 III 期		()		前期 III 期		()		

도면 1. 천선행의 돌대문토기 편년안(2005)

천선행은 전기 후반까지 돌대문토기의 장기 존속을 주장하고 있으며, 초기는 돌대문토기 단독기로서 의미를 부각시켰고, 전기 1기가 되어야 이중구연토기와 돌류문토기 등이 공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면 2. 쇼다신야(2007)의 남강유역 편년안

쇼다신야의 편년에서 초기~전기에 해당되는 시기는 1~3기이며, 4기는 전기 말 혹은 전환기적 성격을 가지는 시기이다. 돌대문토기(단독기) → 퇴화돌대문토기(절상, 누상돌대문), 이중구연토기 → 혼암리식토기 → 돌류문, 구순각목문토기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

정지선(2012)		
남강1기 초기~ 전기전반	1단계	돌대문토기(1)만 소형 장방형, 중대형 장방형주거지, 석상위석식, 초석
	2단계	돌대문토기(일주, 절상, 누상), 이중구연토기B 소형 내지 중형 장방형주거지, 석상위석식·위석식·무시설식노지 등 다양.
남강2기 전기전반 ~후반	3단계	가락동식토기가 확인. 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B는 소멸. 중형 장방형주거지, 위석식·무시설식노지
	4단계	혼암리식토기와 공열, 구순각목문토기 확인 소형 장방형, 중형 장방형·세장방형, 무시설식·수혈식노지
이중구연토기 A형: 점토판을 이용, B형: 점토띠를 이용		

정지선은 최근 진주 평거동유역이나 연기 대평리유역 등에서 출토되는 돌대문토기인지 이중구연토기인지 모호한 토기를 점토띠 부착 방법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점토띠 부착 후 물손질 등으로 부착부위를 지운 것은 돌대문토기 그렇지 않은 것은 이중구연토기B 형식으로 구

분하였다. 초기~전기를 4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돌대문토기 단독기→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B→가락동식토기→혼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로의 변화를 상정하고 있다.

기종	대부	소형	마연토기				완	소용	기타	편지	고민정 (2003·9) 소다 신야 (2007)						
			평적호	원지호	적색마연호	대형					1	2	3	4			
초기	상발	상발	장경호	채문호	소형	대형				기종년종합	1기	2기	3기	4기			
전반										기종년종합	초기	전반	후반	후기			
전기										마연토기 분기안	I기	II기	III기	IV기			
후반										편지의 시기구분	전반	후반	하춘리기	후기			
후기										마연토기	대부로	채문호 I·II	채문호 III·IV	채문호 IV·V	채문호 VI		
										주거지	평면 수(25)	12	43	35	105	354	106
										유구	노지	(석상)위석식노지	평지식, 토광식노지	노지, 수혈	수혈		
										대표 무덤	없음	토광(목관)	장방형주구묘	원형주구묘	중소형(원·방형)	대형(원·방형)	묘역지석묘
										트기문양	구연부보강문 (돌대문, 이중구연문) 횡대구획문, 공열문, 물류문,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구연부 장식문	혼암리식 물류문, 구순각목문	외화혼암리식 물류문, 구순각목문	물류문, 구순각목문	무문	
										대표 유물	대형호	i 식	ii·iii 식	iv 식	v·vi 식		
										석기	장방형 편인석부, 단면방형 합인석부, 단신석촉(무경·이단경식)	이단방식석검, 중신석촉(무경·이단경식)	주상편인석부, 평근석촉	유구석부, 일단방식석검, 단부돌출형석촉, 장신석촉, 삼각형석도			

도면 3. 송영진의 마연토기 편년안(2012)

송영진은 마연토기를 통한 남강유역의 편년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연부보강문→구연부장식문→무문의 형태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기존의 전기 후반을 중기로 설정하였다. 초기를 설정하지 않고, 전기를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토기문양을 통한 전기 전반과 후반의 구분은 시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연구자들 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송영진의 토기문양의 변천안이 발표자의 견해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송영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돌대문토기 단독기로서의 초기 혹은 초기 전반을 설정하였다. 또한 돌대문토기의 세부형식 차이를 시기 차이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단계설정을 하였다. 발표자는 남강유역의 돌대문토기 단독기에 대한 확실성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과 동시에 최근 중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로 파악되는 돌대문토기 주거지의 출토유물상에서도 이를 구분하기는 어렵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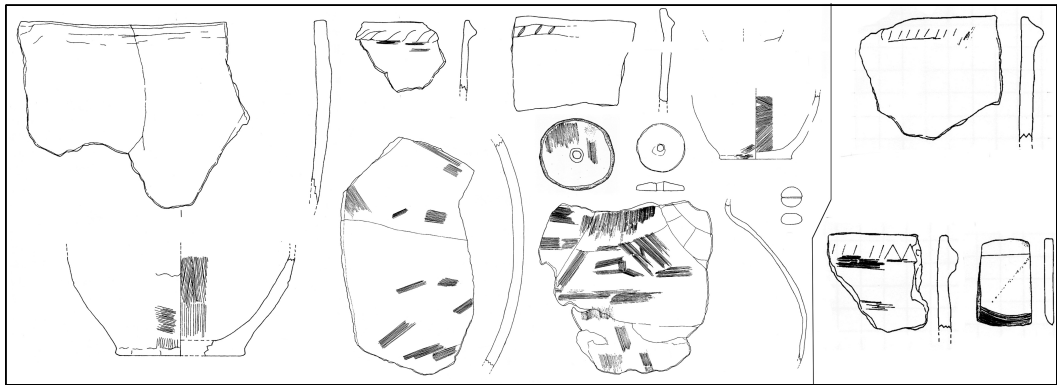
돌대문토기 단독기로서의 초기(천선행 2007, 안재호 2006) 혹은 초기 전반(고민정 2009, 정지선 2012)으로 편년할 때 대표적인 유적은 옥방5지구 D2호 장방형주거지와 상촌리 D지구

1) 박영구(2012)의 초기 전반에 해당되는 칠정C1호 주거지에서는 절상돌대, 유상돌대, 이중구연이 함께 공반하고 있으며, 돌대의 부착위치도 다양하다. 또한 외삼포리 5호 주거지에서도 일주하는 돌대, 절상돌대, 유상돌대가 공반한다.

B2·B10호 주거지를 들 수 있다. 옥방5-D2호 주거지의 특징은 석상위석식노지만 1기 조성되어 있고,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타 주거지에 비해 소형인 점이다. 중부지역의 최근 돌대문토기 편년의 경우에도 절대연대치가 높게 나오는 중소형의 방형계 주거지를 가장 이른 단계로 보고 있다(박영구 2012).

옥방5지구의 D2호 장방형주거지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각목돌대가 구연단에 이격되어 부착되어 있는데, 극히 일부 파편이다. 공반된 유물은 석제방추차, 토제방추차와 호형토기편, 무문심발, 저부편 등으로 유물의 공반 관계를 뚜렷하게 알 수 없다. 이 주거지가 돌대문단독기로서의 조기로 편년됨에는 절대연대 측정치(3230 ± 30 , 3180 ± 60)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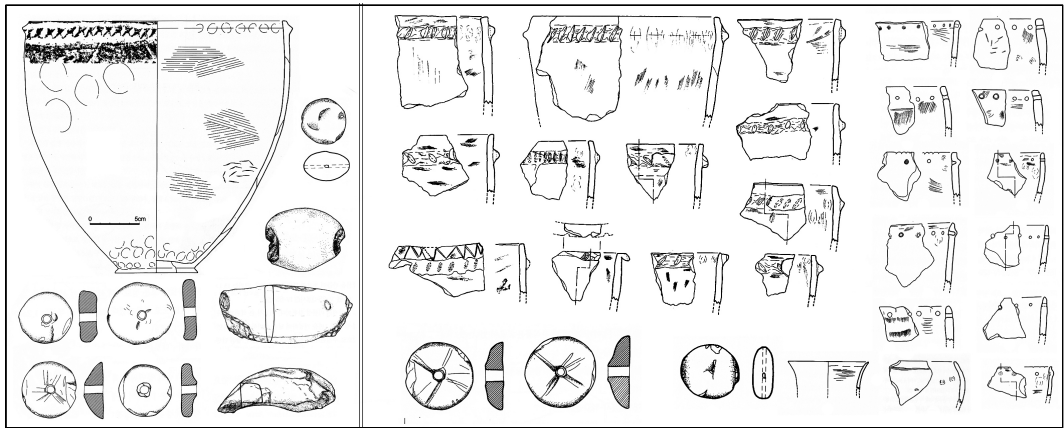
옥방5지구 D1호 장방형주거지에서도 각목돌대가 구연단에서 이격되어 부착된 토기편 2점이 출토되었는데, 1점은 절상돌대이다. D1호와 D2호의 출토유물에서 차이는 절상돌대인가, 일주하는 돌대인가의 차이이다. 그런데 양 주거지 출토 돌대문토기 모두 파편이기 때문에 모두 일주하는 돌대문토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물의 공반 관계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지만, 돌대문토기 편만으로 볼 때, 양 주거지를 다르게 편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D2호 장방형주거지는 돌대문 단독기로서의 조기, D1호 주거지는 전기 전반 혹은 중반에 편년하는 문제점이 있다.



도면 4. 옥방 5지구 D-1호(우),2호(좌) 주거지 출토유물

상촌리D지구 B구역 2호(3030 ± 30)와 10호(3010 ± 50)의 경우 연대측정치가 옥방5지구의 것보다 다소 늦어 조기에서 제외시키는 연구자도 있지만(천선행 2007, 고민정 2009), 돌대문토기 단독기로서 이른 시기로 보는 경향이 많다. 보고서를 검토하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모든 연구자가 공감할 것이다. B2호는 보고서 유구도판을 보면 돌대문토기 외에도 다

수의 토기가 석상위석식노지 주변에서 확인되었으나, 돌대문토기 외의 다른 특정 토기유물의 공반은 보고되어 있지 않고, 석제어망추와 장방형계석도가 공반된 정도만 알 수 있다. B10호는 돌대문토기 편이 다수 출토하였고, 구연외단각목토기가 공반되고 있다. 다수의 돌류문토기 편도 출토되고 있어 돌류문토기의 초기 출현설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적색마연호의 편과 남강유역 후기의 특징 유물인 횡침선문완이 출토되는 점에서 유물의 공반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보고서 유구도판에서 보면 대부분의 유물이 석상위석식노지보다 상당히 뜬 상태로 출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5. 상촌리 D지구 B-2호(좌), 10호(우) 출토유물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볼 때, 돌대문 단독기로의 유물상은 명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하였듯이 돌대문토기 형식을 통한 시기구분도 최근의 자료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Ⅲ. 초기~전기 주거지 출토 유물 공반양상

남강유역에서 조사된 초기~전기의 주거지 중에서 비교적 유물의 공반 관계 파악이 용이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돌대문토기 출토 주거지의 공반유물

전장에서 돌대문단독기의 사례로 언급한 유구 이외의 돌대문토기 출토 대표적인 유적은 평

거동유적과 가호동 2호, 본촌리 나3호, 옥방5지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돌대문토기 이외의 공반유물은 다음과 같다.

호수	토기	석기
평거동3-1 2호	이중구연, 직립호	부리형석기
평거동3-1 4호	이중구연, 이중+단사선, 뇌문채색토기, 직립호	장방형석도, 삼각만입촉, 부리형석기, 석제어망추, 석환
평거동3-1 6호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직립호	장방형석도, 편인석부, 부리형석기, 석환
평거동3-1 7호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사격자문	장방형·어형석도, 합인석부(단면방형), 편인석부, 석(토)제어망추, 석제방추차, 부리형석기, 석영제천공구
평거동3-1 11호	이중구연+단사선	장방형석도, 합인석부(단면원형), 석제방추차, 부리형석기
평거동3-1 12호		장방형석도, 삼각만입촉, 유경촉, 석제방추차, 부리형석기
본촌리 나-3호	이중구연+단사선, 직립호, 외경호, 횡대사격자문	장방형·어형석도, 합인석부(단면방형), 편인석부, 석(토)제어망추, 석제방추차, 석영제천공구, 석환
옥방 5 - C3호	공열, 이중구연+공열+단사선	
평거동 3-1 3호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외단각목, 뇌문채색토기	장방형석도, 삼각만입촉, 부리형석기, 석제어망추, 석환
평거동 4-1 1호	구순각목, 외경호, 양공어망추	장방형석도, 편인석부, 유경촉
평거동 4-1 2호	구순각목, 공열, 외경호, 양공어망추	
평거동 4-1 3호	외단각목, 구순각목, 외경호, 직립호	장방·어형석도, 석환
평거동 4-1 5호	외단각목, 이중구연, 이중구연+공열+구순각목, 구순각목, 구순각목+공열	어형석도, 보습, 편인석부, 석환
가호동 2호	외단각목, 거치문,	어형·주형계석도, 합인석부(단면방형), 삼각만입촉, 유경촉, 편인석부,

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유물상의 큰 특징은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선문계의 공반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순외단각목과 구순각목도 공반되는데, 단독문으로서만 존재한다. 외단각목과 구순각목은 돌대문의 퇴화양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민정 2009). 공열도 소수 공반되는데, 외단각목이나 구순각목과 공반되는 양상이 주를 이룬다. 석기의 경우 장방형석도의 공반이 두드러지며, 신석기시대의 전통이라 볼 수 있는 석제어망추가 공반되는 경우도 많다. 평거동 유적에서는 부리형석기의 공반이 두드러진다. 합인석부의 경우 단면방형을 띠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본촌리 나3호와 평거동 3-1 7호 주거지는 다른 주거지에서 잘 보이지 않는 사격자문과 석영제천공구를 비롯하여 거의 동일한 유물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2. 이중구연토기 출토 주거지의 공반유물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이중구연토기가 중심이 되는 유구는 가호동 1호와 상촌리 시굴주거지가 있다. 이들의 출토유물상은 다음과 같다.

호수	토기	석기
상촌리 시굴	이중구연, 직립호, 외경호, 돌류문	합인석부(단면원형)
가호동 1호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이중구연+거치문, 거치문	장방형석도, 삼각만입촉, 합인석부(단면방형), 편인석부

양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의 특징은 구연부 외측에 접합한 이중구연부가 넓고, 완전한 이중구연이라기 보다는 약간 기벽화된 느낌이 강하다. 평거동이나 본촌리의 이중구연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반면 이중구연토기 심발의 기형은 전형적인 남부지역 후기 즐문토기 기형을 계승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유사이중구연토기(흔암리·가락동식토기) 중심 주거지의 공반유물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이중구연토기의 이중구연부가 최상단 점토판 접합 시 흔적으로 퇴화한 형태의 유사이중구연토기가 중심이 되는 주거지의 출토유물상은 다음과 같다.

호수	토기	석기
초전동 55호	공열+구순각목	어형석도, 이단경축, 편인석부 등
초전동 42호	유사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선, 유사이중구연+단사선, 공열, 구순각목	장방형·어형석도, 혈구석검, 합인석부(단면원형), 편인석부, 석환
본촌리 나-6호	구순각목외경호, 구순각목+돌류, 유사이중+구순각목+단사선+돌류, 적색마연외경호	어형석도, 합인석부(단면원형)
사월리 11호	이중구연+단사선, 유사이중+구순각목+단사선+돌류, 돌류+구순각목, 돌류, 구순각목, 외경호, 마연외경호	어형·주형석도, 이단병석검, 이단경축, 석환
옥방 5 - C4호	유사이중+구순각목+단사선+돌류, 돌류, 외경호, 마연외경호, 이중구연완, 천발	어형·주형석도, 합인석부(단면원형), 일단경축, 이단경축, 편인석부
사월리 3호	유사이중+단사선, 단사선+구순각목+돌류, 돌류+구순각목, 구순각목,	삼각만입촉
초전동 43호	이중구연, 유사이중구연+단사선, 유사이중+구순각목+단사선, 공열, 돌류, 완	석검, 편인석부
옥방 4 - 10호	유사이중+단사선+돌류, 돌류+구순각목, 돌류	

심발의 구연부 문양인 전형적인 이중구연은 소멸하고, 일부 기벽화 된 이중구연이 남아 있다. 대부분 유사이중구연으로 바뀌며, 복합문으로서 주로 확인한다. 마연된 외경호와 이중구연완(대평리식이중구연토기)이 확인된다. 장방형석도는 초전동 42호를 제외하면 보이지 않고, 대신 주형석도가 확인된다. 합인석부는 단면 원형만 확인된다.

4. 돌류문과 구순각목(역삼동식토기?) 중심 주거지의 공반유물

유사이중구연은 보이지 않고, 돌류문과 구순각목문이 중심이 되는 주거지의 출토유물상은 다음과 같다.

호수	토기	석기
대촌 7호	구순각목+돌류, 구순각목호, 단사선	
옥방 4 - 1호	돌류, 구순+돌류, 돌류+단사선	주형석도, 이단경축, 석검, 편인석부
옥방 4 - 8호	단사선, 구순+돌류, 돌류, 채문의경호, 완	이단경축, 일단석검, 이중구연완
대촌 2호	돌류문	
사월리 6호	소형심발	주형석도, 편인석부
상촌리E 3-14호	천발, 적색마연호	편인석부
상촌리E 3-16호	구순각목, 구순각목+돌류, 완	
대평리 1호	돌류, 구순각목+돌류, 직립호, 외경호, 채문의경호, 완, 이중구연완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축,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옥방 1 - 2호	구순각목+돌류	
옥방 4 - 11호	돌류+구순각목, 돌류, 채문의경호, 외경호	주형석도, 합인석부(단면원형)
옥방 5 - C2호	돌류문, 이중구연완, 완	주형석도, 일단경축, 합인석부(단면원형), 부리형석기
본촌리 나-8호	돌류, 구순각목, 외경(외만)호	어형석도-부리형석기전용, 삼각만입촉, 편인석부, 석검, 반원형 부리형석기, 석환
옥방 8 - 15호	돌류+구순각목	반원형 부리형석기
옥방 1 - 1호	구순각목+돌류, 돌류, 구순각목호,	반원형 부리형석기
옥방 2 - 20호	구순각목+돌류, 돌류	삼각만입촉(만입부제형) 석검, 환상석기, 석환, (반)원형 부리형석기

퇴화된 유사이중구연은 보이지 않고, 일부 단사선문만이 확인되는데, 본 그룹 내에서 고단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마연된 외경호와 이중구연완이 계속 확인된다. 석도는 대부분 주형석도만 확인되며, 돌대문토기 단계의 부리형석기와는 다른 형태인 반원형의 부리형석기가 확인된다. 대평리 1호 주거지의 경우 후기 유물과 함께 보고되어 있어, 공반유물의 진정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IV. 남강유역 초기~전기의 편년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초기~전기의 주요한 문양속성은 주지하듯이 각목돌대문, 이중구연, 단선문계, 구순각목문, 공열문, 돌류문, 유사이중구연 등이다. 이들 문양의 시작과 소멸시기를

앞서 살펴본 출토유물의 공반양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초기	전기	하촌리기	후기
돌대문	■			
이중구연	■			
단선문계		■		
구순각목문			■	■
공열문		■		
돌류문		■	■	
유사이중구연			■	
대평리식이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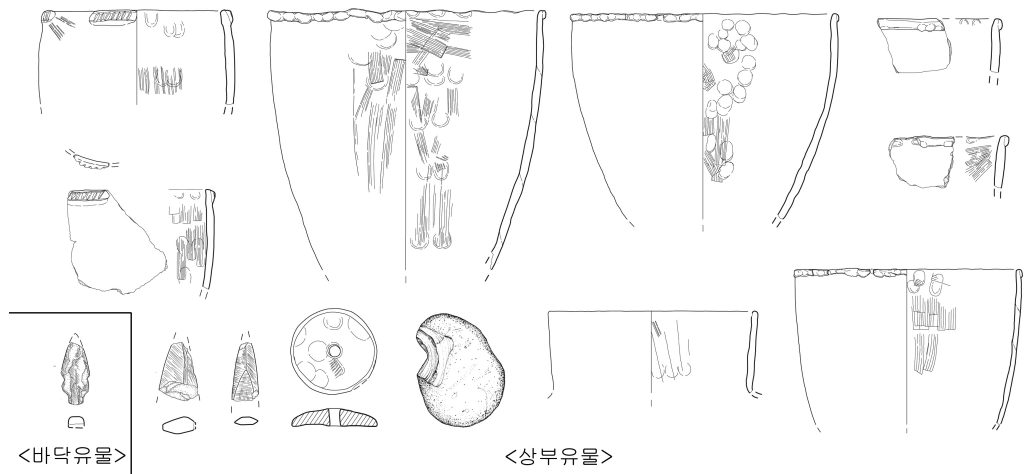
- * 돌대문토기: 청동기시대의 시작부터 출현. 이주민에 의한 전파. 유사이중구연의 고단계까지 존속.
- * 이중구연토기: 청동기시대 시작부터 출현. 이주민에 의한 전파. 유사이중구연의 고단계까지는 존속.
- * 단선문계: 청동기시대의 시작부터 출현. 이주민에 의한 전파. 거치문, 사격자문 형태는 유사이중구연 출현시점에 소멸. 유사이중구연 단계에는 단사선형태로만 남음. 단사선문계는 전기말 이전에 소멸.
- * 구순각목문 :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 어느 시점에 출현. 송국리문화 단계까지 존속. 옥방 2지구 27호 방형계(대평리형주거지)주거지에 출토. 송국리형토기(외반구연호)가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송국리문화 후반까지 존속 가능. 단 각목은 불규칙하고, 얇은 형태로 전기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퇴화됨.
- * 공열문: 돌대문토기 및 이중구연토기 존속기간 내 어느 시점에 출현. 이주민에 의한 전파인지, 남강유역 현지에 자생 혹은 변화인지 알 수 없음. 돌류문 등장이후 보이지 않음.
- * 돌류문 : 돌대문토기와 확실한 공반 예는 없고 및 이중구연토기 신단계에 출현. 이주민에 의한 전파인지, 남강유역 현지에 자생 혹은 변화인지 알 수 없음. 송국리문화형성기(하촌리기)까지는 확실히 존속. 후기 송국리문화 전반경에도 파편으로 확인되나 공반관계는 단정하기 어려움.
- * 유사이중구연 : 이중구연 신단계에 출현. 전기 말 이전에 소멸.
- * 대평리식이중구연 : 심발의 이중구연요소가 소멸된 후 유사이중구연 어느 시점에 완을 중심으로 하는 기형에 출현. 송국리문화 형성기(하촌리기)까지 존속. 송국리문화 단계에는 횡침선문으로 변화.

V. 맺음말

남강유역에서 초기~전기에 해당되는 주거지 수는 타지역에 비하면 많지 않고, 일부 중요한 유적의 경우 아직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연대측정자료 역시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의 자료(고민정 2009)에 한정되어 있고, 자료의 집적도 적기 때문에 남강유역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치는 적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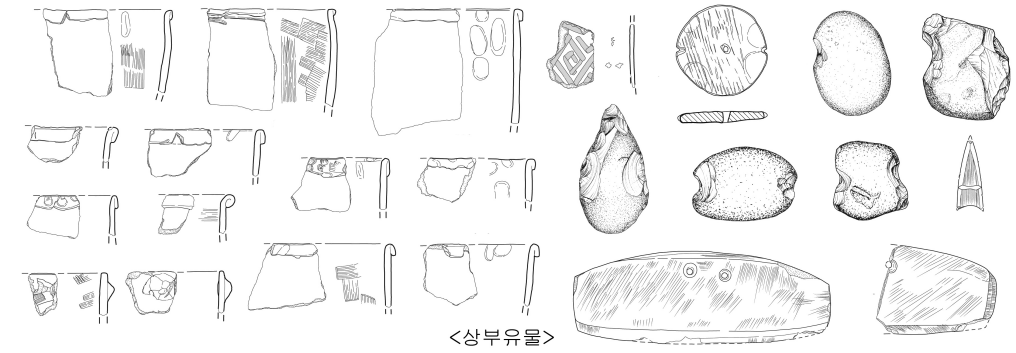
조기는 돌대문과 이중구연이라는 새로운 문양요소의 등장하는데, 이는 중국동북지방에서의 주민이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재지 즐문토기 문화와의 융합을 뚜렷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현상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 단계에는 재지계 전통도 분명이 흡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를 전반과 후반으로 분기할만한 획기를 찾기는 어려우나, 구순각목문이나 공열문 요소의 공반을 보다 신단계로 본다면 가능할 수 있다.

전기는 조기의 문양요소가 사라지거나 재지적 성격으로 변화된 형태로, 유사이중구연+단사선, 돌류문+구순각목문, 돌류문, 구순각목문이 주류를 이룬다. 전기 전반은 복합문이 줄류를 이루지만, 전기 후반으로 가면서 문양요소가 돌류문, 구순각목문으로 한정되어 간다. 한편 전기 전반의 신단계에 마연된 외경호와 이중구연완이 출현하여 하촌리기를 이어 후기까지 변화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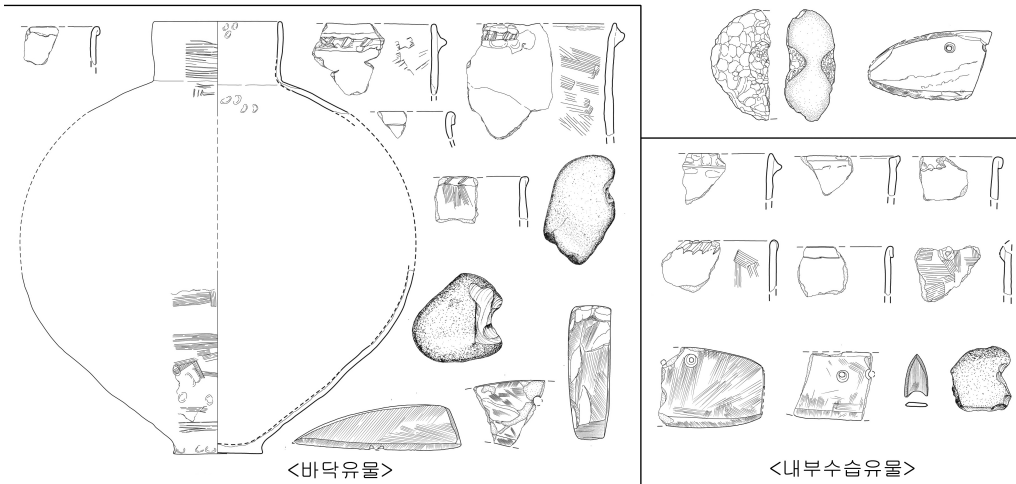


<바닥유물>

<상부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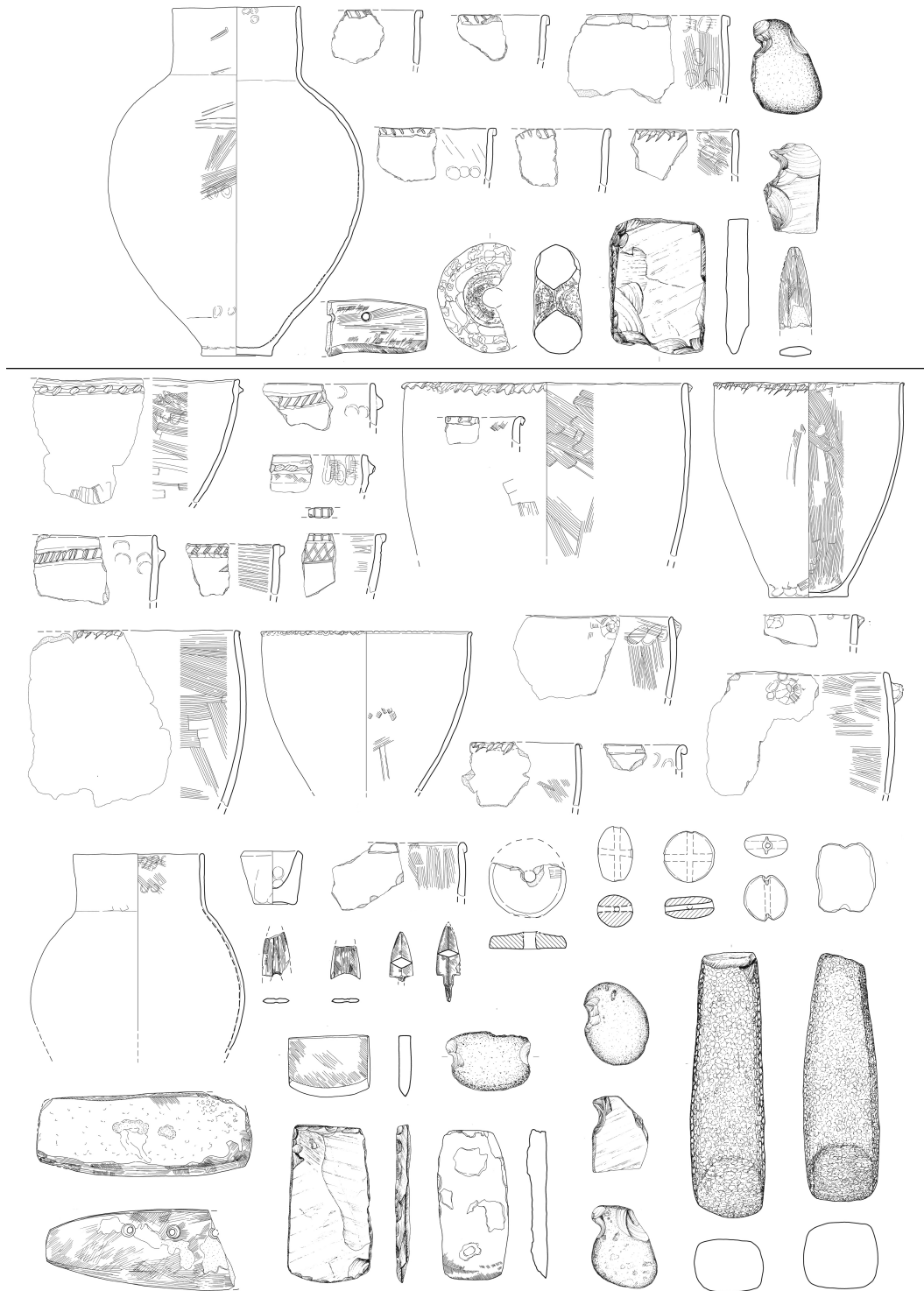
<상부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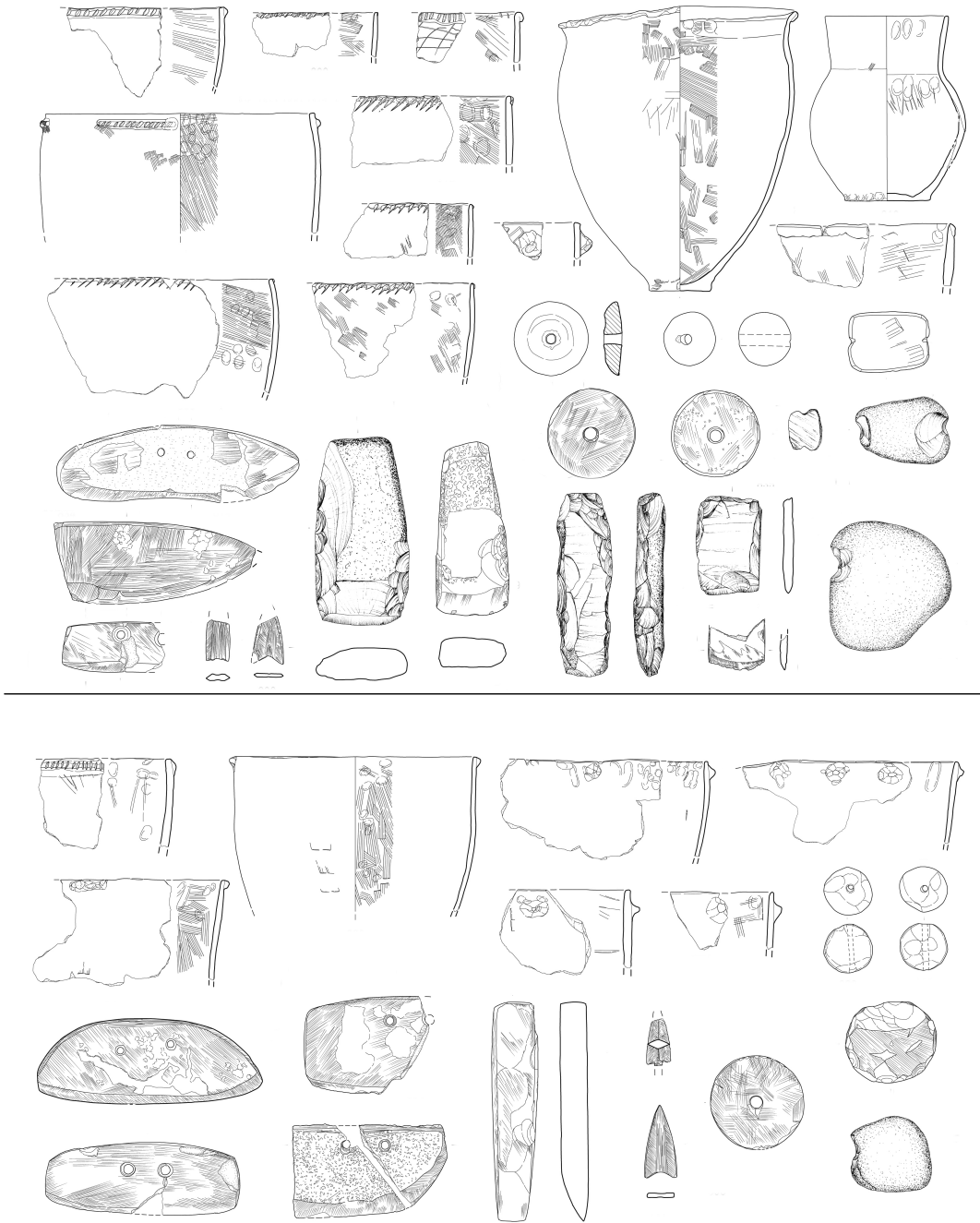
<바닥유물>

<내부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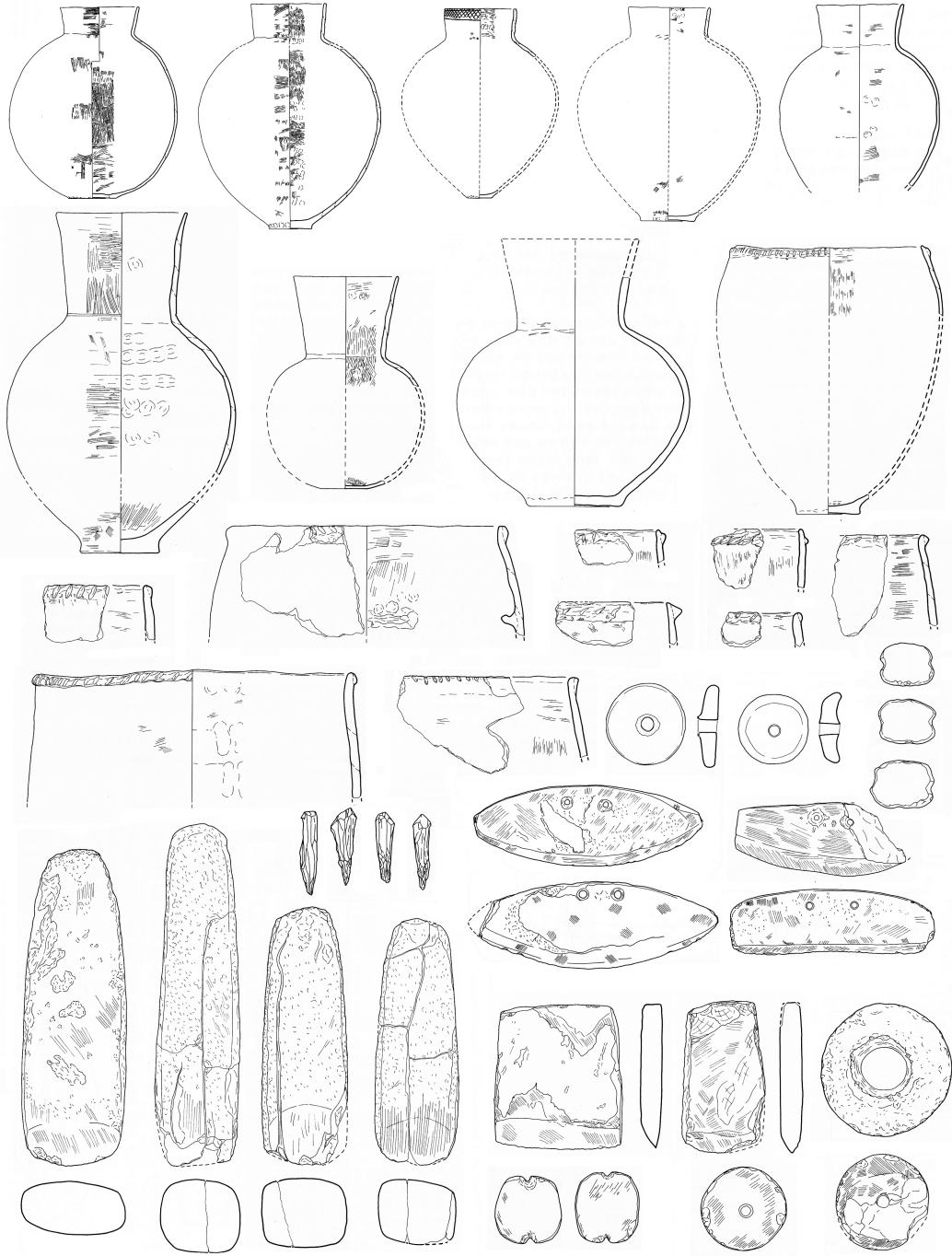
도면 6. 조기(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평거동 3-1 2호, 하: 평거동 3-1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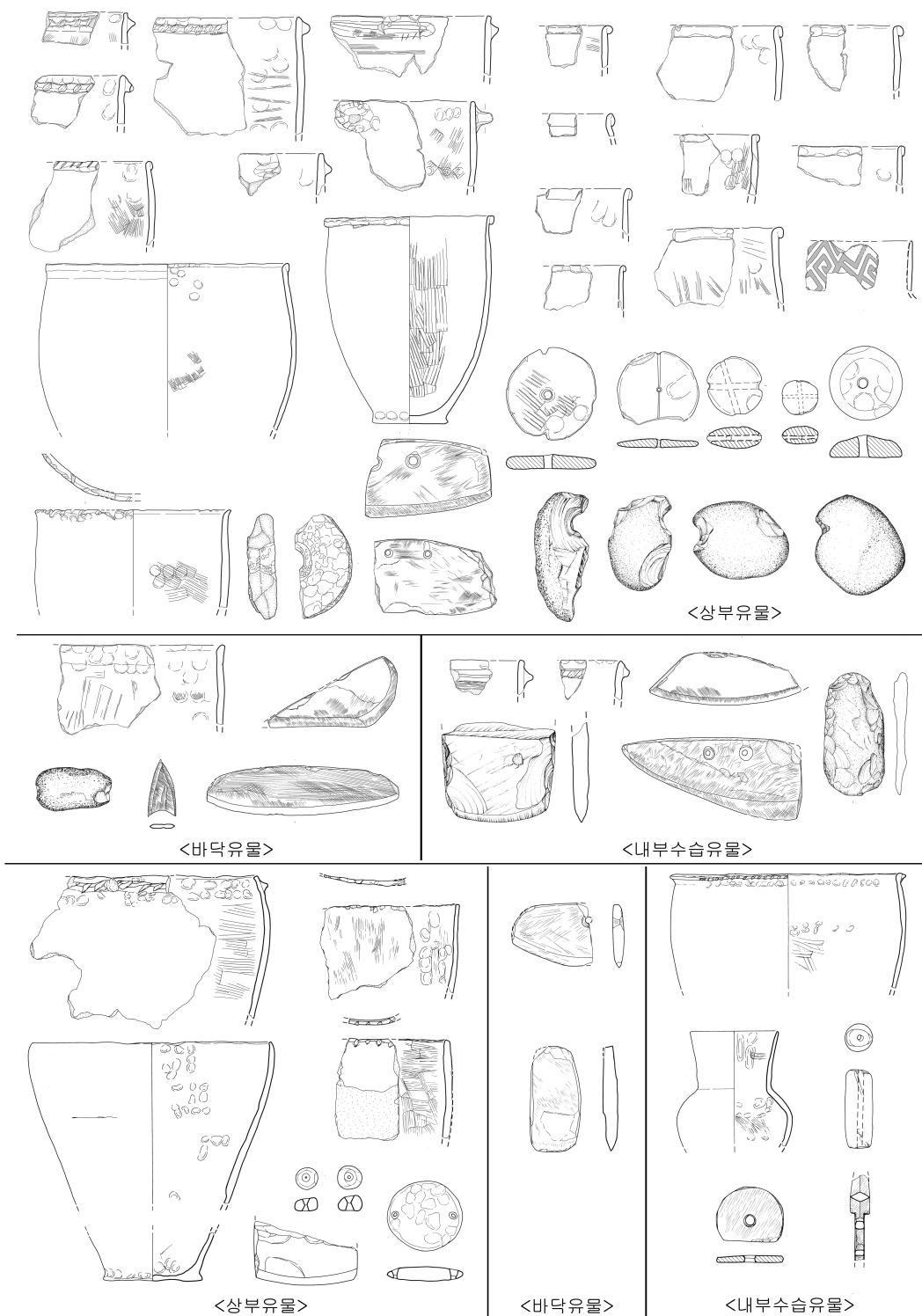
도면 7. 조기(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평거동 3-1 6호, 하: 평거동 3-1 7호 바닥)



도면 8. 초기(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평거동 3-1 7호 바닥, 하: 평거동 3-1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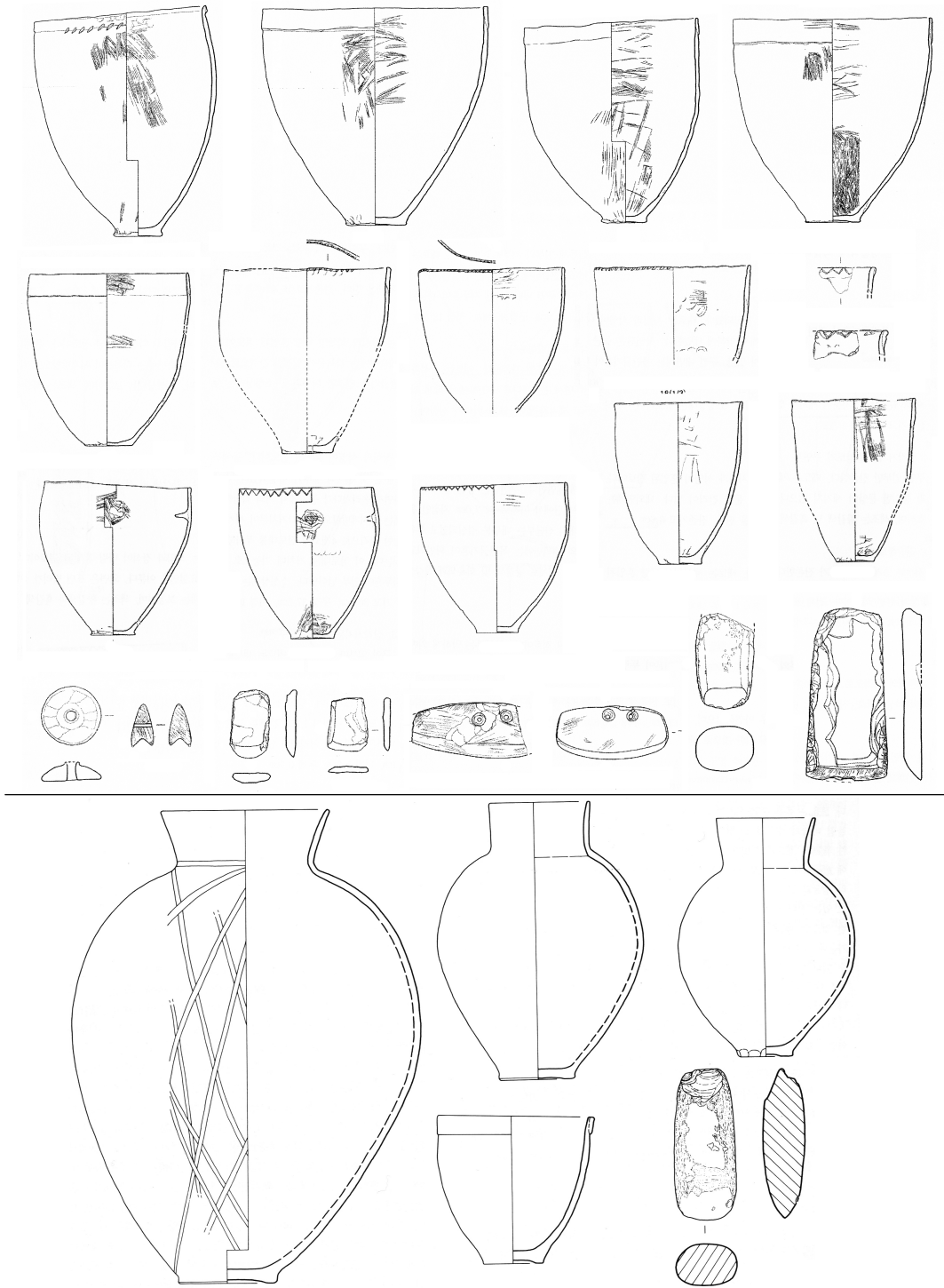
도면 8. 조기(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본촌리 나 3호)



도면 9. 초기(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평거동 3-1 3호, 하: 평거동 4-1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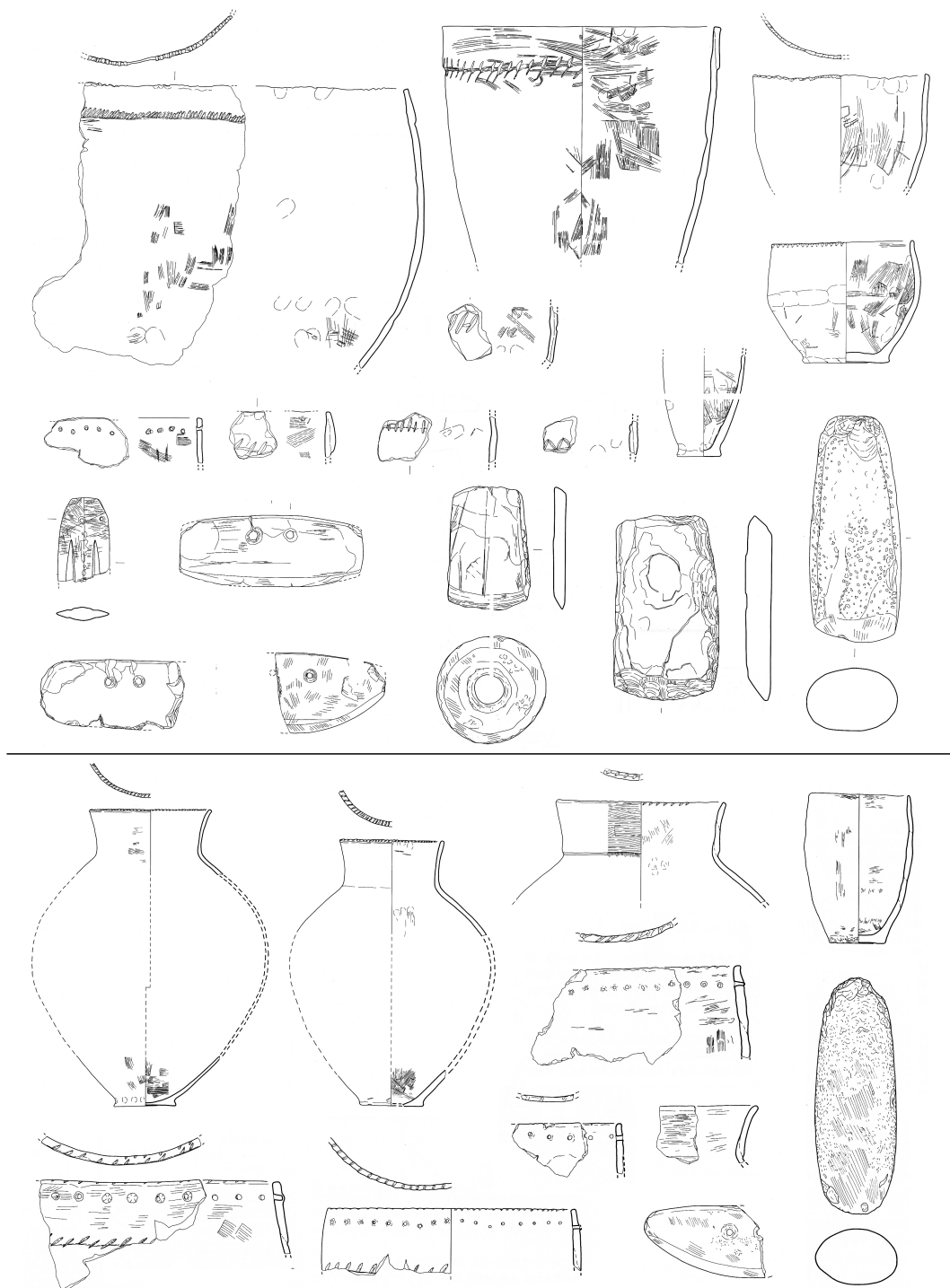
도면 10. 조기(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평거동 4-1 5호, 하: 가호동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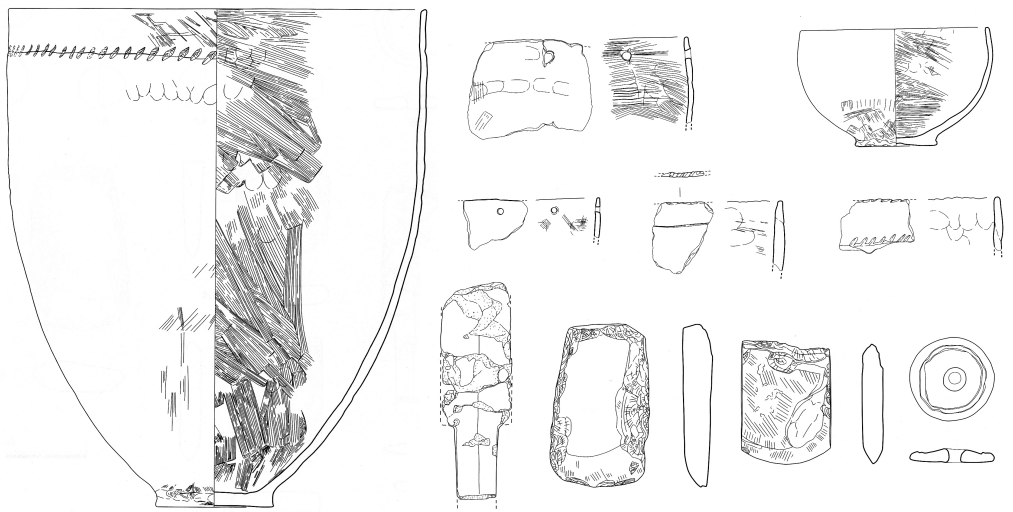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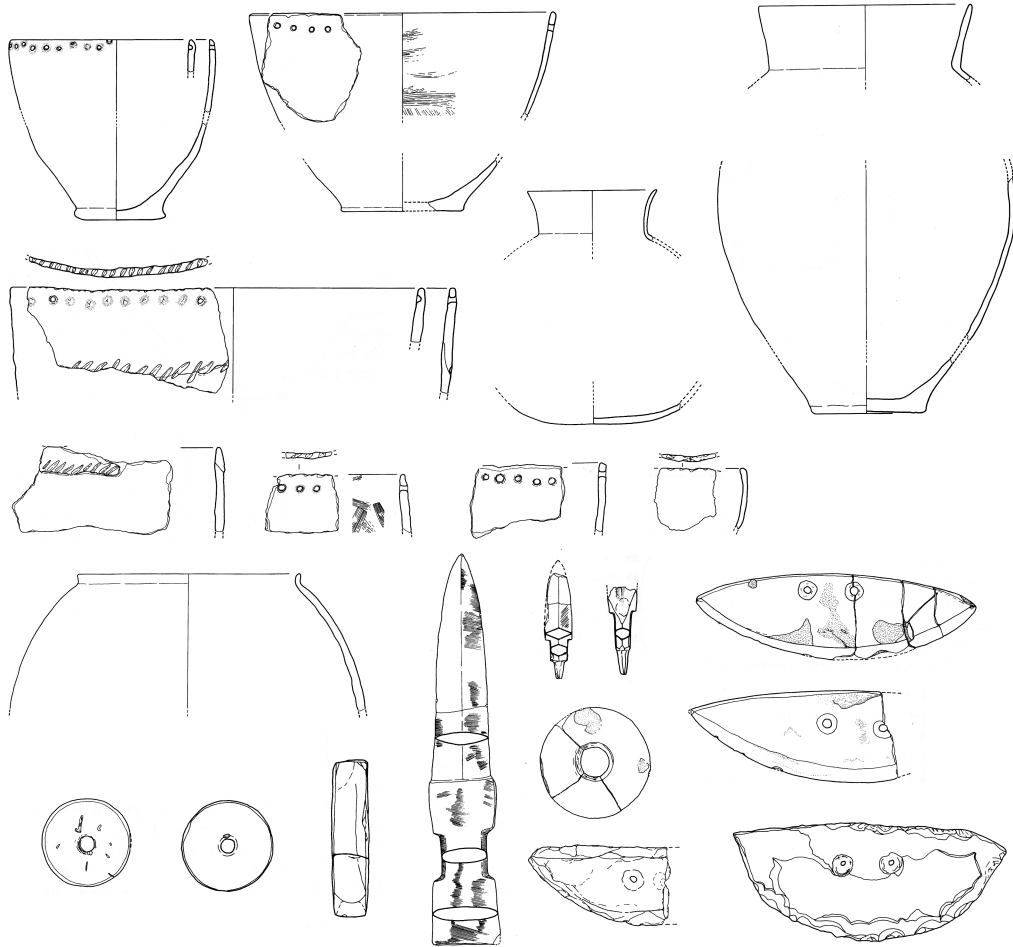
도면 10. 이중구연토기(조기 후반~전기 초?) 유물 공반양상(상: 가호동 1호, 하: 상촌리 시굴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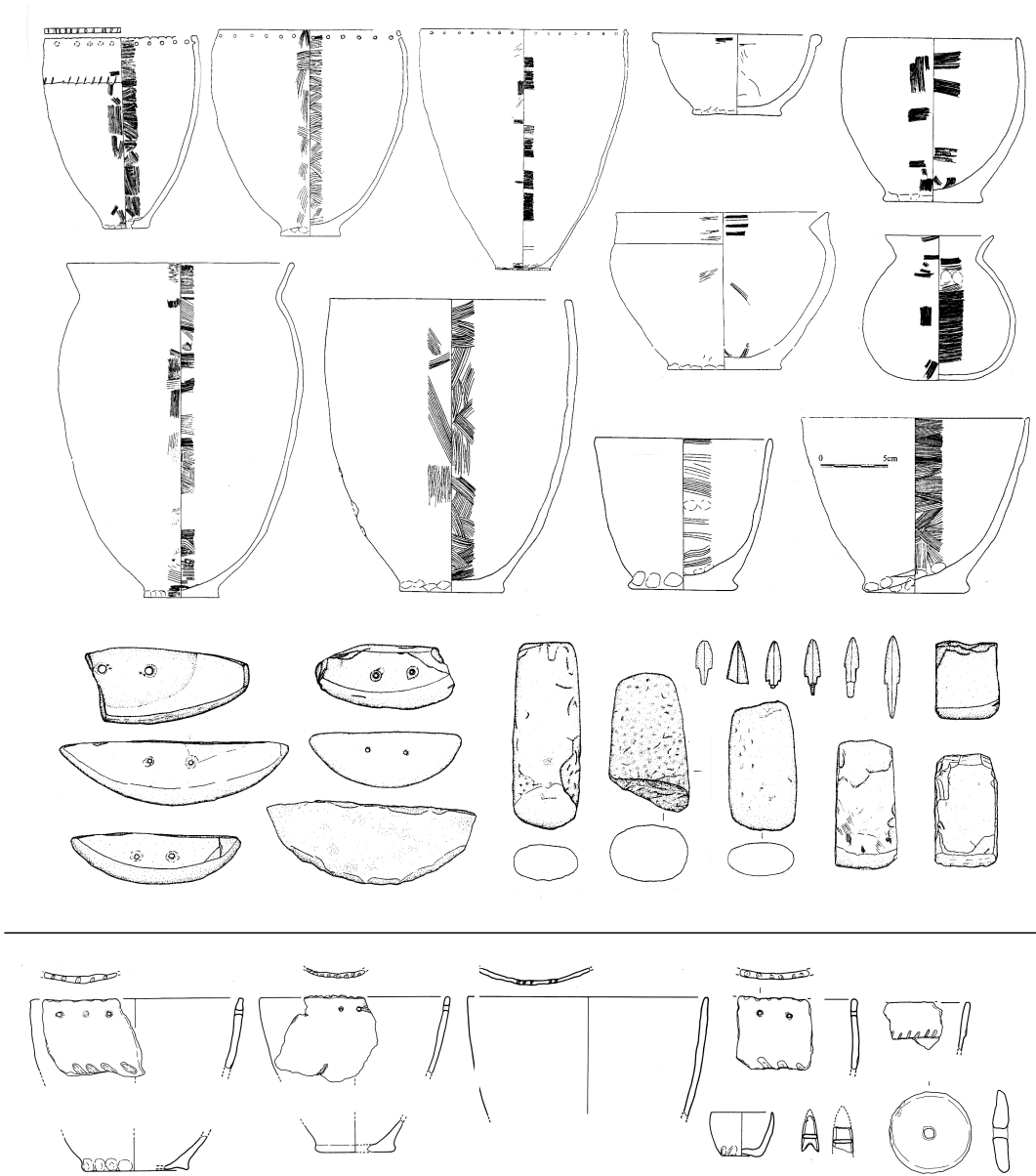
도면 11. 진주 초장동유적 3-2구역 1호 주거지 출토유물(전기 전반-고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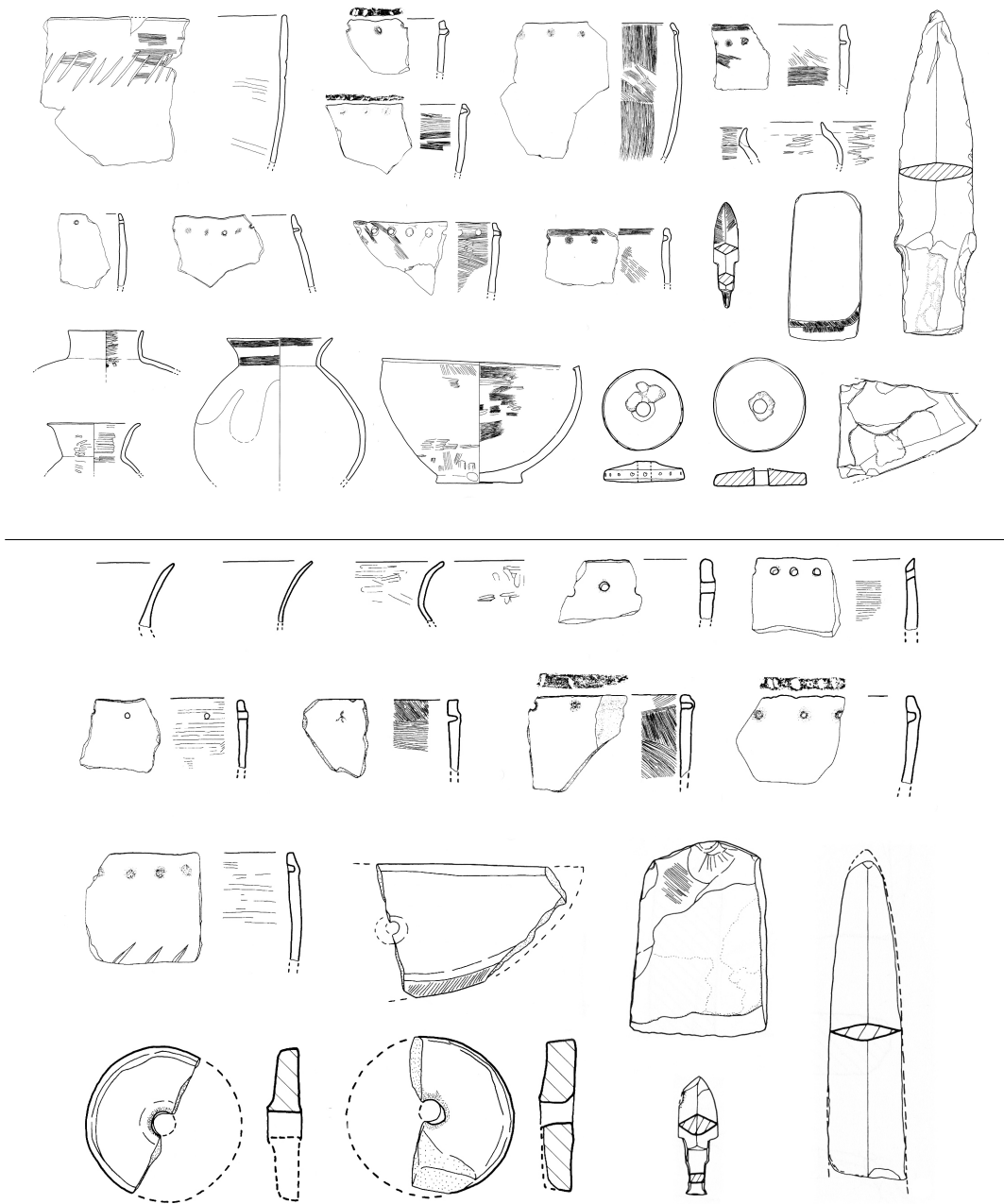
도면 12. 전기(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초전동 42호, 하: 본촌리 나-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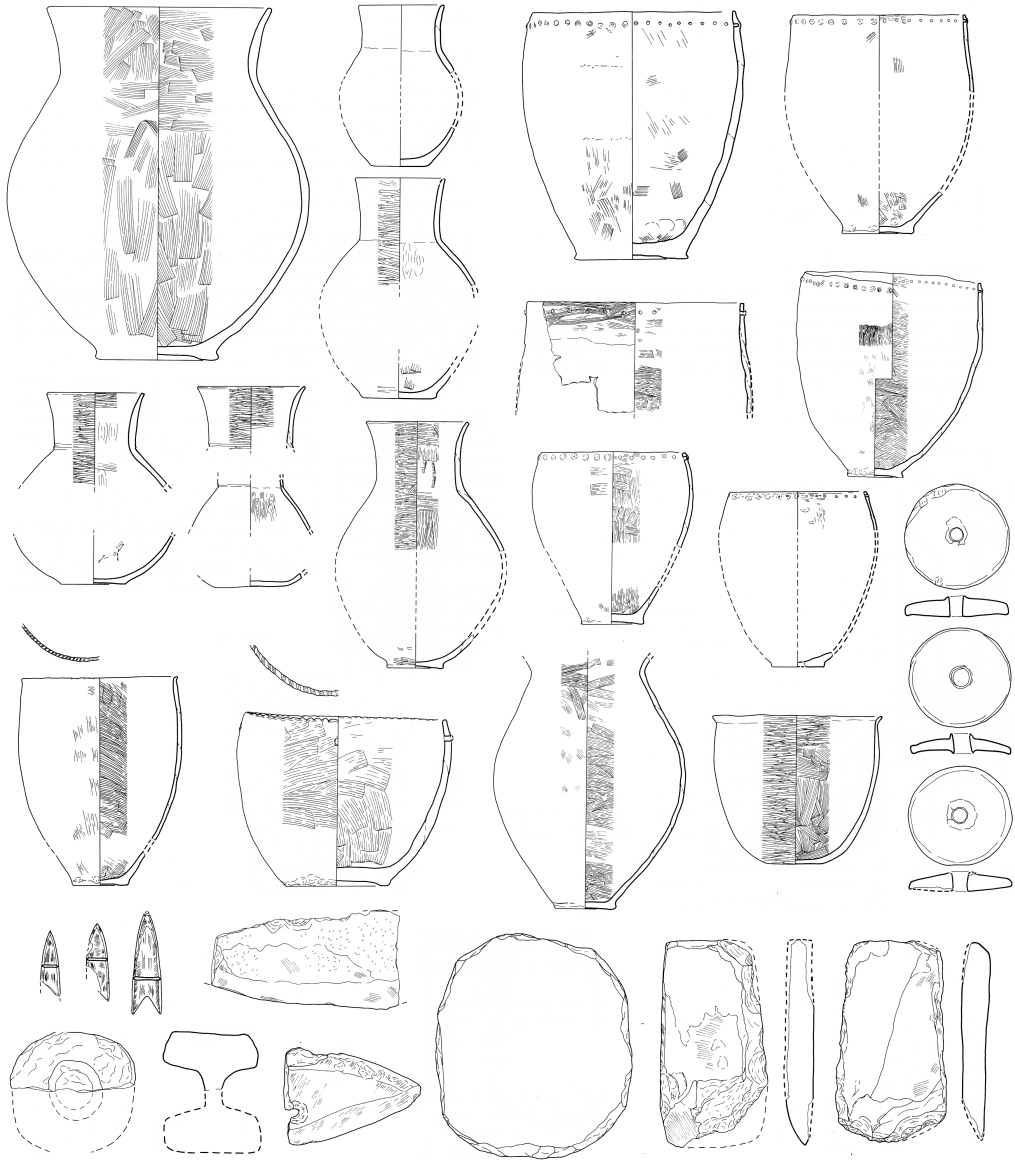
도면 13. 전기(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사월리 11호, 하: 초전동 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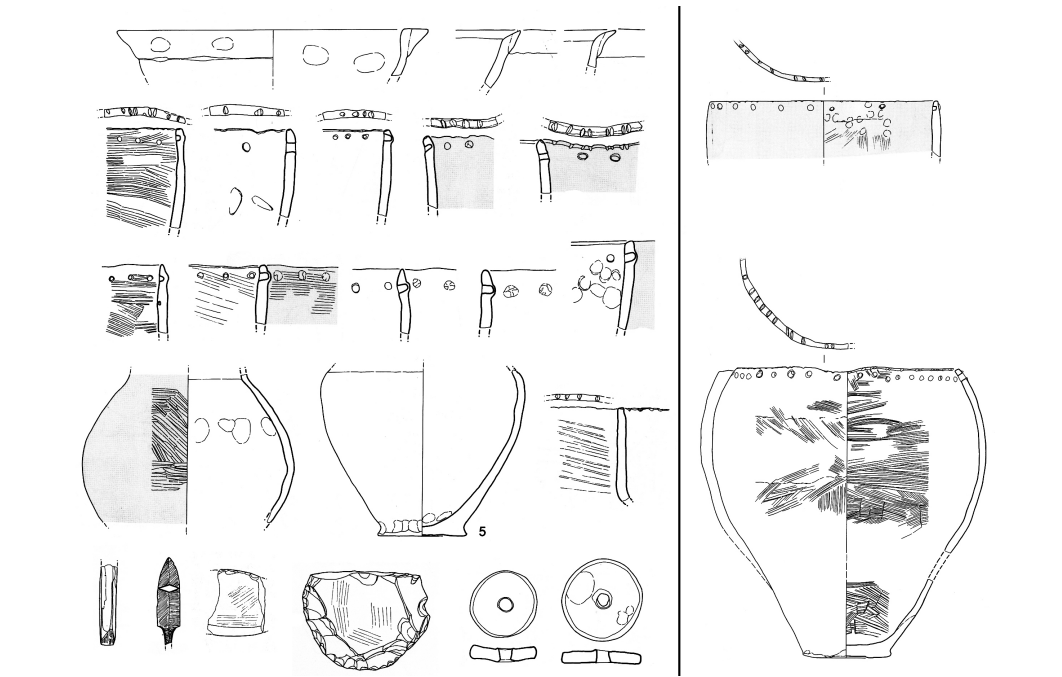
도면 14. 전기(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옥방 5 - C4호, 하: 사월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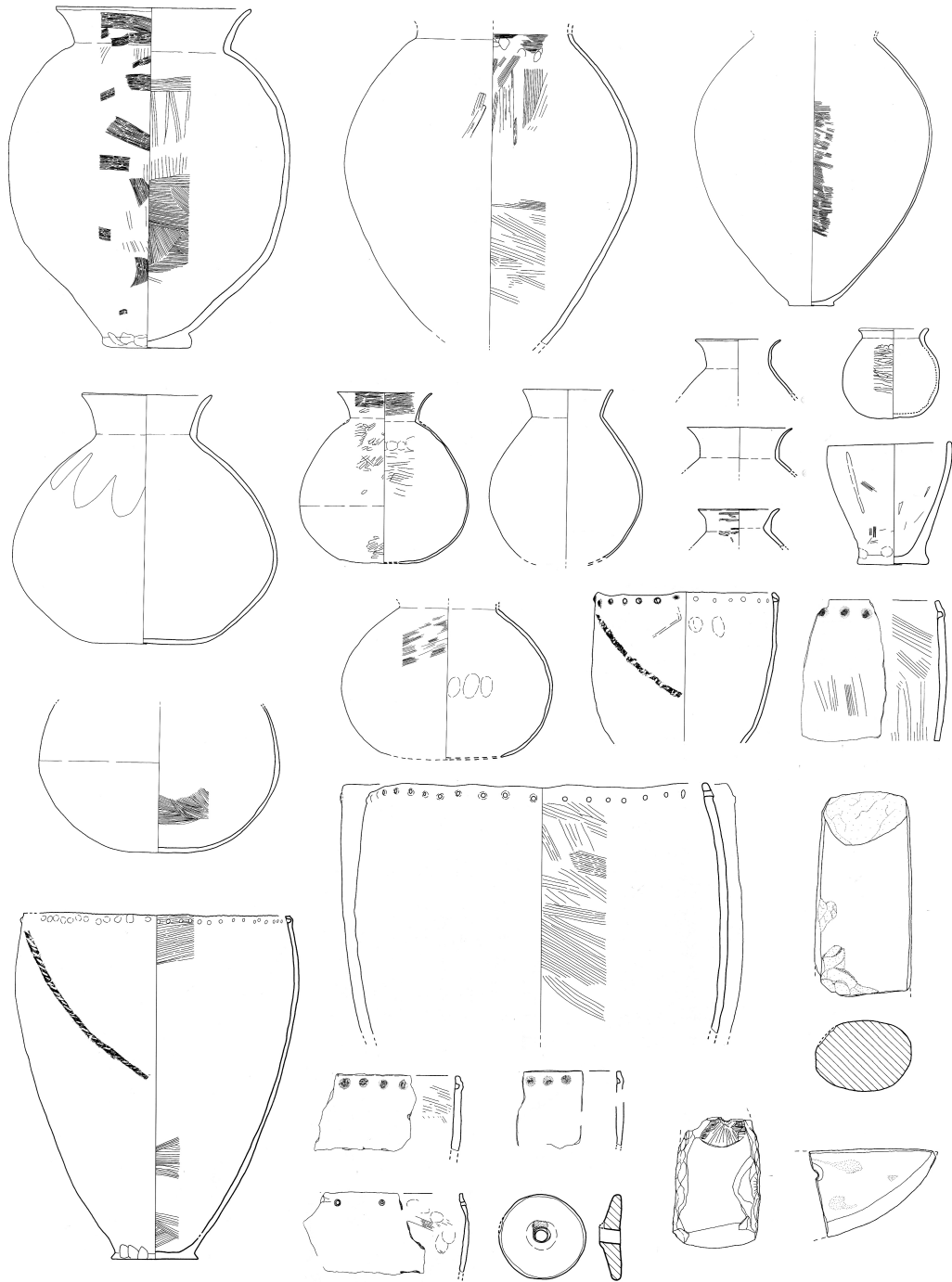
도면 15. 전기(후반-고단계?)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옥방 4 - 8호, 하: 옥방 4 -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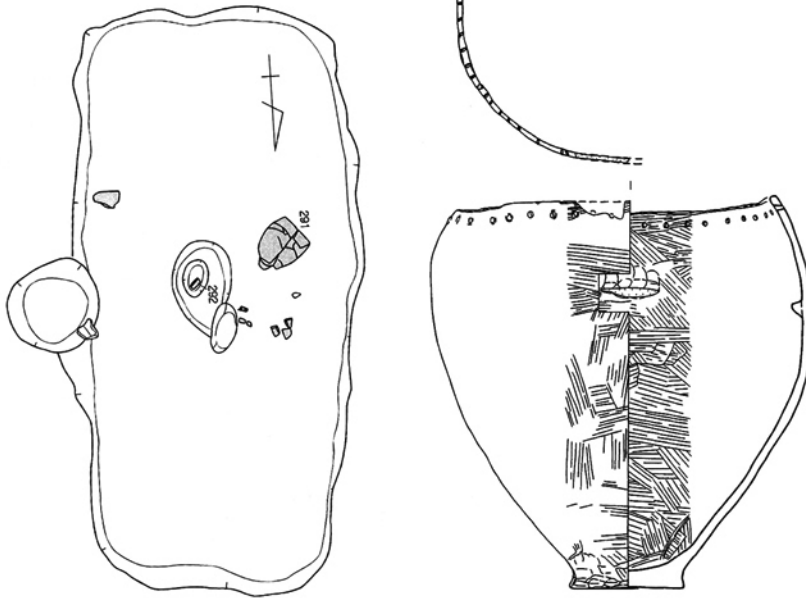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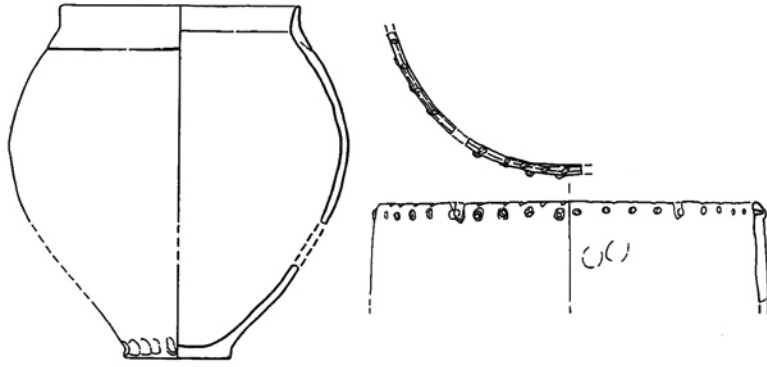
도면 16. 전기(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본촌리 나-8호)



도면 17. 전기(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상: 옥방 1-1·2호 하: 옥방 2-20호, 8-15 호)



도면 18. 전기(후반) 출토유물 공반양상(옥방 4 -11호)



도면 19. 하촌리기(전기~후기 이행기) 주거지 및 출토유물

상: 하촌리 3-2호, 하: 하촌리 1-15호

참고문헌

〈보고서〉

- 건국대학교박물관, 2001, 『晋州 上村里 3~8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晋州 大坪 玉房1·9地區 無文時代集落』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1, 『山淸 下村里遺蹟』
- _____, 2011,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 _____, 2012, 『진주 평거 4-1지구 유적』
- 慶尙大學校博物館, 1999, 『晋州 大坪里 玉房2地區 先史遺蹟』
- 國立晋州博物館, 2001, 『晋州 大坪里 玉房 I 地區 遺蹟 I · II』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晋州 大坪里 漁隱2地區 先史遺蹟 I』
- _____, 2003, 『晋州 大坪里 玉房8地區 先史遺蹟』
- 大田保健大學博物館, 2005, 『晋州 上村里 9~13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
- 東西文物研究院, 2011, 『晋州 加虎洞遺蹟』
-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 II』
- 東義大學校博物館, 1999, 『山淸 沙月里遺蹟』
- _____, 2008, 『晋州 大坪里 玉房4地區 先史遺蹟 I』
- 文化財研究所, 1994, 『晋陽 大坪里遺蹟』
- 釜山光域市立博物館 福泉分館, 1998, 『晋州 貴谷洞 대촌遺蹟』
- 鮮文大學校, 2001, 『晋州 大坪里 玉房五地區 先史遺蹟』
- 한국문물연구원, 2012, 『晋州 草田 環壕聚落遺蹟』

〈논문 및 보고문〉

- 高旻廷,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9,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와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무문토기 조·전기를 중심으로」, 제2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분과 발표회.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記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二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경상대학교대학원 碩士學位論文.
- _____, 2011, 「南江流域 下村里型住居址에 대한 一考察」, 『慶南研究』4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송영진, 2012, 「南江流域 磨研土器의 變化와 時期區分」, 『嶺南考古學』60號, 嶺南考古學會.

庄田愼矢, 2007, 「南韓 青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沈奉謹, 1999, 「晋州 上村里出土 無文土器 新例」, 『文物研究』第3號.

박영구, 2012, 「中部地域 突帶文土器文化의 展開樣相」, 『韓國上古史學報』第75號, 韓國上古史學會.

裴眞晟,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32, 嶺南考古學會.

_____,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安在晔,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정지선, 2012, 「청동기시대 남강유역 조·전기 취락구조」, 『지리산권역의 선사·고대 취락』 제1회 남악고고학연구회 학술대회.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57, 韓國考古學會.

_____, 2007, 「無文土器時代의 早期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 創刊號, 韓國青銅器學會.